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8.(수) 12:00 (목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2. 7.(화)
담당부서	물관리정책실 토양지하수과	책임자	과 장 이정용 (044-201-7170)
		담당자	주무관 허승혜 (044-201-7180)

물 공급 취약지역에 깨끗한 지하수 공급 노력 가속화 - 공공·개인 노후관정의 수질검사·시설개선을 하는 나눔·안심지하수지원사업 적극 추진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물공급 취약지역*의 공공·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‘나눔지하수 사업’ 및 ‘안심지하수 사업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물공급취약지역(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): 상수도 미보급지역,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, 수질오염으로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

○ ‘나눔지하수 사업’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,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, 올해는 16개*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
* 강릉·양양, 청주·원주, 진도·영광, 화순·남원, 영주·구미, 양구·평창, 니주·함평, 군위·예천

○ ‘안심지하수 사업’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△수질검사, △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,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.

□ 한편, 환경부는 지난해 소속·산하 기관(국립환경과학원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환경공단)과 함께 추진한 ‘나눔지하수 사업’ 및 ‘안심지하수 사업’ 실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.

- 환경부는 ‘나눔지하수 사업(한국수자원공사)’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.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(19가구, 35명)에 마을상수도 공공관정을 개발*하여 공급했다.

* 마을상수도 공공관정 개발 현황

지 역	이전 식수원	양수량	사용인구
충북 옥천군(성촌마을)	지하수관정(얕은심도)	80톤/일	11가구(20명)
전남 곡성군(수곡마을)	계곡수	50톤/일	8가구(15명)

- ‘안심지하수 사업’을 통해서는 물공급 취약지역 2,102곳의 음용 지하수에 대해 무료로 수질을 조사(국립환경과학원)했다.
-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시급한 지역들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,297곳은 소독 및 주변 오염원 제거 등 환경개선을 지원했다. 아울러 101곳은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4곳*의 마을에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(한국환경공단)를 지원했다.

* 마을공용 음용관정 개발 현황

지 역	이전 식수원	양수량	사용인구
충북 괴산군(심기마을)	계곡수	80톤/일	20가구(70명)
강원 홍천군(장골마을)	계곡수	20톤/일	7가구(11명)
경북 예천군(큰골마을)	계곡수	90톤/일	5가구(12명)
경북 예천군(모시골마을)	계곡수	9톤/일	7가구(14명)

- 특히,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던 경북 예천군 큰골과 모시골 마을은 불안정한 수량과 수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,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공용관정을 개발해 약 12가구(26명)에 공급하여 생활용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.
- 아울러,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사용이 부적합했으나, 시설개선(에어서징, 관정청소)을 실시한 후,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개선됐다.

- 환경부는 올해에도 가뭄대비 물공급, 지하수 수질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‘안심지하수 사업(개인관정 개선 및 마을공공 음용관정 설치)’의 경우 현재 대상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(2023년 2월 24일까지)하고 있으며, 안심지하수 전화상담(1899-0134, 국립환경과학원)을 통해서도 연중 개인관정의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.
-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“지하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, 용수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안심·나눔지하수사업 실적 및 계획. 끝.



□ '22년 추진실적

○ 나눔지하수

지역	실태조사	시설개선(관정개발)	수질검사	공급가능량	비고
영월군	279	7	17	23,517	
정선군	331	6	43	37,946	
춘천시	229	9	55	31,583	
화천군	159	9	46	21,945	
김제시	302	1	105	18,002	
옥천군	354	22(1)	107	11,642	
영암군	461	6	72	62,849	
해남군	829	8	70	87,630	
곡성군	358	3(1)	70	59,648	
광양시	334	6	61	37,036	
통영시	200	5	72	23,393	
밀양시	530	8	78	66,030	
합계	4,366	90(2)	796	481,221	

○ 안심지하수

- (지하수 수질검사) 2,102개소, 개인관정(음용) 수질검사(먹는물 47개 항목) 실시
 - (초과관정 지원)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 지원
 - 노후관정 개선*(101개소), 관정 소독 및 주변 환경정리(2,297개소), 마을공용관정 개발(4개소)
- * 상부보호공 설치,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

□ '23년 추진계획

○ 나눔지하수

구분	사업기간	대상지역	수행기관
신규(10개소)	'23~'24	강릉·양양, 청주·완주, 진도·영광, 화순·남원, 영주·구미	한국수자원공사
계속(6개소)	'22~'23	양구·평창, 나주·함평, 군위·예천	

○ 안심지하수

수질검사 (국립환경과학원)	수행기관(한국환경공단)		
	소독 및 주변청소	노후관정 개선	공용관정 설치
2,000	1,000	200	4

□ 지하수 관정개선

		
관정 청소·소독	관정청소	상부보호시설 설치
		
우물자재 교체	관정상부 막음조치	주변 오염원 제거
		
관정 청소	밀폐식 상부보호시설 설치	염소소독 정수설비 설치

□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

		
지하수 착정	예비팩카 설치(양수시험)	수질검사 분석
		
오염방지 그라우팅	상부보호시설 설치	음용급수대 설치